‘지역문화재 활용사업’ 광주·전남 40선 선정

광주 동구 문화재 야행 ‘달빛걸음’등 28건·전남 ‘목포 야행(夜行)’ 등 12건 …문화재청 290선 발표

광주 동구 문화재 야행(夜行) ‘달빛걸음’, 순천 문화재 야행 ‘승평지로 바라본 순천문화재’, ‘목포 야행(夜行)’ 등 광주전남에서 2019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에 40선이 선정됐다.

문화재청은 내년에 활용할 지역 문화재 290선을 최근 발표했다. 여기에는 ‘문화재 야행’ 27선, ‘생생문화재’ 132선,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97선, ‘전통 산사 문화재 활용’ 34선 등이 포함됐다.

이 사업들은 문화재청의 대표적 지역 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지역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개발해 지역민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먼저, 문화재야행사업은 야간에 특화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에서는 앞서 언급한 3선이 내년에도 진행될 예정이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화재 문턱은 낮게, 프로그램은 높게, 국민 행복은 크게’를 목표로 잠자는 문화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콘텐츠화 하는데 초점을 뒀다. 광주시에서는 ‘문화재를 새롭게, 해현경장(解弦更張)’ 프로그램이 선정됐으며 동구 ‘오감만족 풍류산책’, 서구 ‘서창 들녘에 부는 바람’, 남구 ‘신나는 고싸움놀이로 고(告), 고(誥), 고(go)’, 광산구 ‘광산 가옥, 짓다’, 북구 ‘덕령아, 놀자!’가 채택됐다.

전남은 모두 12개의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근대 역사 여행’·‘본정통 Knock 樂’(목포), ‘승리의 바다 백성의 바다’(여수), ‘임진왜란의 역사 동아시아 평화의 시대로’(순천), ‘조선의 도시로 가자 정도 천년의 나주, 쪽빛으로 밝힌다’(나주), ‘성(城) 돌 사이에 피어난 현호색’, ‘문화재로 세상을 잇다’(담양), ‘내가 만난 첫 번째 문화재’(곡성), ‘문화가 머무르는 보성여관’(보성), ‘지란지교의 숨결! 학포, 정암을 기억하다’(화순), ‘더 샵 252 영랑생가!’(강진), ‘바닷물백바가지 소금한줌, 생생 소금밭체험’(신안) 등이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은 향교와 서원을 사람과 이야기로 가득한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자는 취지다. 광주 월봉서원과 무양서원의 ‘모두의 월봉’, ‘무양 in the city’가 채택됐다.

‘Restart! 여수향교-다시 시작하는 100년’(여수), ‘순천 하늘의 이치를 따르다’(순천), ‘나주향교 굽은 소나무 학교’(나주), ‘창평향교 은행나무학교’(담양), ‘축제한마당-향교서원에서 신나게 놀자!’(곡성), ‘Happy구례향교’(구례), ‘화순지학 향교지락’(화순), ‘문림의향 장흥향교 청소년 문화체험’(장흥), ‘강진향교로 고고씽’(강진), ‘해남 유생학 개론’(해남), ‘인성학교’(영암), ‘끼꾼끈, 쌍기억으로 600년 은행나무를 깨우다’(무안), ‘천년의 빛 영광 옥당고을의 선비이야기’(영광), ‘청렴, 절의, 의기 찾아 떠나는 선비문화체험여행’(장성) 등이다.

광산구 임곡동 월봉서원에서 진행된 유교체험의 한 장면.

마지막으로 전통 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은 인문학적 유산과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전통산사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광주에서는 원효사의 ‘원효사, 무등산을 품다! Ⅲ’가 선정됐다. 전남에서는 여수 흥국사의 ‘호국사찰 흥국사, 여수 흥(興)하다’, 순천 송광사와 선암사의 ‘조계산 천년산문을 열다’, ‘우리동네 절집마실 ‘절로절로’’, 구례 화엄사의 ‘화화등등(華化登燈) 화엄 불(佛) 밝히다’, 해남 대흥사의 ‘4인 4색’ 등이 뽑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시각장애 어린이들의 꿈과 우정

김희철 광주 KBS 영상감독 동화 ‘소리당번’ 펴내

‘몸이 천 냥이면 눈이 구백 냥’이라는 속담이 있다. 그만큼 우리 몸에서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얘기다. 시각장애인은 선천적인 경우와 자라면서 시력이 상실된 경우가 있다. 후천적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불행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시각장애 어린이들의 꿈과 우정을 담긴 이야기가 한 편의 동화로 탄생했다.

광주 KBS 영상감독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희철 작가가 펴낸 ‘소리당번’(가문비 어린이)은 시각장애 어린이들의 꿈과 우정을 그린 작품이다. 동화에서 소리당번은 모둠의 리더로 소리를 찾아내는 당번을 일컫는다. 맨 앞에서 걸어가면서 뒤에 오는 친구들을 안내하는 역할이다.

어느 날 새린이는 친구들을 돕고 싶어 소리당번이 되겠다고 자청한다. 새린이는 9세 때 포도막염을 앓아 시력을 잃었다. 소리당번이 되고 소풍을 가면서 동화는 역동적으로 전개된다. 친구들을 데리고 지하철을 타고, 더러는 화장실에 가고 싶은 친구를 도와야 한다. 엄마가 없는 슬기가 김밥을 싸오지 않아 중앙시장에 들르지만 길을 헤맨다. 선생님이 도와주지 않는데 과연 새린이는 소리당번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책은 장애를 극복하면서 행복한 삶을 꿈꾸는 새린이와 친구들을 통해 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 나도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흔히 시작장애인이 다니는 학교를 ‘맹아학교’라 부르지만 새린이네 학교는 ‘빛날 학교’라고 부른다. 또한 전혀 보지 못하는 아동은 ‘큰 빛’, 저시력 아동은 ‘작은 빛’이라고 부른다. 책 뒤편에는 흰 지팡이, 점자블록, 점자책, 안내견에 대한 주의사항, 시각장애인을 돕는 구체적인 방법 등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하기 위한 여러 상식도 담겨 있다.

저자는 “동화를 쓰게 된 것은 눈 감아도 보이는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다”며 “마음으로 보면 세상이 환하고 아름답게 열리는 감동을 맛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작가는 기독공보 신춘문에에 소설 ‘창세기호’, 불교신문 신춘문예에 동화 ‘귀면와’가 당선돼 창작활동을 시작했다. 2018년 광주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에 ‘소리당번’이 선정됐으며 제2회 건국대 창작동화상 수상작 ‘보랏빛 나팔소리’를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서 책 선물해 보세요

이수그룹 ‘더 블루박스 프로젝트’ 무료로 고른 책 우편 배달

포장지 힌트만 보고 선택하는 재미…22일까지 문화전당서

‘전시도 보고, 책도 선물하고.’

18일 2018 광주비엔날레 주제전 장소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입구 ‘더 블루박스 프로젝트(THE BLUEBOX PROJECT)’ 부스는 책을 고르는 이들로 북적였다.

광주비엔날레 후원사인 이수그룹이 첫 선을 보인 이 프로젝트는 비엔날레 전시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전시 도서 중 한 권을 무료로 선택한 후 블루박스에 넣으면 원하는 이에게 우편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이 프로젝트가 재미있는 건 모두 포장된 상태로 진열돼 있어 책의 제목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방문객은 ‘#변화 #불확실성 #사막을 건너는 이’, ‘#거짓말, 백 투더 퓨처’ ‘#이거 읽어봤나 #뭔가 #이 느낌은 뭔지…’ 등 책 포장지에 적힌 힌트만을 보고 책을 선택하는 즐거움이 있다.

이날 부스를 찾은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들은 힌트를 보고 책을 고른 후 가족이나 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해 주소를 적어 현장에 놓인 푸른 우체통에 넣었다.

‘더 블루박스 프로젝트’는 인터랙티브 북 셰어링(Interactive book sharing) 형태의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이수그룹은 이번 비엔날레에 모두 1300권을 기증했다. 더 블루박스는 오는 22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이수그룹 사내도서관 ‘파란책방’과 연계돼 기획됐으며 기부에 국한돼 온 사회공헌 활동의 틀을 깨고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기업과 시민사회가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문의 062-608-4224.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가 열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에서 진행중인 ‘더 블루박스 프로젝트’.

‘김광현교수에게 건축을 듣다’ 강연

광주전남건축가회·공동건축학교 20·21일 문화전당 극장3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와 공동건축학교가 주최하는 ‘김광현 교수에게 건축을 듣다’ 강연회가 20, 21일(오후 7시~10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3에서 열린다.

김광현(사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는 ‘건축 이전의 건축, 공동성’, ‘건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 ‘건축강의’ 등의 저서를 집필한 건축 이론의 대표 권위자이다. 김 교수는 지난 7월 JTBC ‘차이나는 클라스’ 프로그램에서 ‘건축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강의, 인기를 모았다.

첫째 날인 20일 강의 주제는 ‘세우는 자, 생각하는 자’이다. 사람은 건축을 왜 하며 사회는 어떻게 건축을 배워야 하는가, 그리고 세운다는 것의 본래 의미는 무엇인가, 아울러 세우는 자인 건축가는 무슨 역할을 실천해야 하는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준다.

21일 강의의 주제는 ‘시간을 설계하는 건축’이다. 건축은 공간을 설계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시간도 설계한다는 사실이다. 김 교수는 순간적이 아닌, 지속하고 시간과 함께 기억과 흔적을 남기고 일상을 중시하는 건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설명한다.

김 교수는 현재 건축 소통 플랫폼인 공동건축학교 교장, (사)한국건축가협회 건축교육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무료 강의는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와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시 건축사회가 후원한다. /김미은 기자 mekim@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 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2018 신양파크호텔 객실 리모델링 기념 가을축제
기간 : 2018. 9. 1(토) ▶ 11. 30(금)
축제 1 객실 가을 패키지 & 한가위 패키지 9.22 ~ 26 (5일간)
객실 리모델링 기념
가을 패키지 60 % DC
한가위 패키지 70 % DC
축제 2 1층 레스토랑 “티파니” 스파게티 & 스테이크 축제
커 피 3,000원
스파게티 13,000 ~ 16,000원
스파게티 코스 (스프+샐러드+스파게티+커피) 22,000원
돈가스 코스 (빵+스프+샐러드+돈가스+디저트+커피) 18,000원
안심스테이크 코스 (빵+전체요리+스프+샐러드+스테이크+디저트+커피) 50,000원
축제 3 신양파크호텔 사우나 이용권 증정
1층 티파니 이용고객 ₩15,000당
사우나 이용권 1매 증정
(연회장 및 조식 이용 고객 제외)
신양파크호텔 예약문의 ☎ (062)228-8000, 221-4101